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 내셨는데, 이후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1-2절)

적용과 나눔 I

신앙생활 초기의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5-7절)

적용과 나눔 II

나는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나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 주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배은망덕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받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두 팔 벌려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저의 죄를 덮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수련회를 통해 한 가족된 3040세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충성되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2. 기독교 문화가 복음을 이 시대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비신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하나님 마음과 성경적 가치를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파송하기】

- 헌금 찬양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Offering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대봉	서계녀	강철규	강호길	김문정	김봉숙	김성제	김은영	김은지	김재욱
	김진용	장영희	김진형	남문주	박경의	서정은	박성만	오순남	박성자	박연출
	박춘식	방옥자	서금자	신동희	신예지	안여송	구정림	양충섭	김만순	윤수례
	이철성	오미선	임관우	임윤구	조원선	전명진	김영경	정무자	정의숙	허원용
	안종길	익명								
감사헌금	강은숙	강철규	강태윤	강호길	고재석	전희정	권도영	권병규	김금례	김동오
	설수정	김재욱	김재중	최옥경	김정원	한영숙	김정원	한영숙	김종순	김주안
	김창배	안명옥	김한수	문유익	문제성	박성만	오순남	신재희	윤수례	이경순
	이미라	이영섭	이춘득	전대근	신윤미	전윤옥	조선일	박하영	최명숙	최영자
	하외숙	한승국	허대순	익명 4						
주정헌금	강대봉	서계녀	서금자	안유정	이춘득					
일천번제	황병주									
선교헌금	강대봉	서계녀	강철규	강호길	고재석	전희정	김봉숙	김성제	김순남	김진용
	장영희	김홍태	김태숙	박성만	오순남	박성자	서금자	서정은	신동희	양충섭
	김만순	유기정	선상이	유혜순	윤수례	이철성	오미선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정의숙	한승국	최정숙	허원용	안종길					
나눔헌금	강대봉	서계녀	강호길	고재석	전희정	김봉숙	김성제	김진용	장영희	김홍태
	김태숙	박성만	오순남	박성자	박춘식	서금자	신동희	양충섭	김만순	유혜순
	윤수례	이철성	오미선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한승국	최정숙	허원용	안종길
건축헌금	강대봉	서계녀	강호길	고재석	전희정	김봉숙	김성제	김진용	장영희	김홍태
	김태숙	박경의	서정은	박성만	오순남	박성자	방옥자	서금자	신동희	안정애
	양충섭	김만순	윤수례	이철성	오미선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정의숙	한승국
	최정숙	허원용	안종길							

심방 성종일 권아름 최운철

전희정	김봉숙	김성제	김순남	김진용
박성자	서금자	서정은	신동희	양충섭
이철성	오미선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Community

지역	구역장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지역	구역장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병기	11 김봉숙					3 김인택	31 신동희	4	16,000	103	교회
	12 한영숙						32 정미숙	2	10,000	12	교회
	13 김영숙						33 신현희	4	30,000	136	교회
	14 정무자						34 원신희	5	15,000	10	교회
	15 구자임						35 전소영	2	10,000		교회
	18 강철규						36 신윤미	6	40,000	66	교회
	19 전대근						39 김창배	2	10,000	128	교회
2 신재희	21 금은정			100	교회	4 김한수	41 정연자				
	22 전정옥	3	15,000	49	교회		42 오순남	4	16,000	210	교회
	23 이미라	3	15,000	40	교회		43 윤여주				
	24 장라정						44 전희정	3	15,000	48	교회
	25 김은지	6	10,000	40	교회		45 이순옥	5	30,000	80	교회
	26 천현진						46 이정희	4	20,000	72	교회
29 신재희	2	10,000	15	교회	49 고재석						

구역교제 41

2024.10.14.

어짚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세아 11:1-11

찬 양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 30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CCM)

향기로운 기도 /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초 점 / 하나님은 패역한 자녀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삶 나누기】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어 보세요.

(Q.T 나눔, 감사 나눔, 일상 나눔 등)

【본문 읽기】

성령 안에서 호세아 11:1-1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패역한 자식처럼 행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기브아와 같이 부패했기에(삿 19-20장) 그들은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듯이 이제 그들은 앗시리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분 백성이 그분께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행합니다.